

공동체 개념: 동아협동체와 식민지

개념사 초고

손열

(연세대학교)

I. 왜 공동체인가

공동체란 상징과 열망을 담는 언어이다. 인간관계의 친숙함, 안정감, 안전감, 상호염려 등을 담는 개념이어서 정치적으로도 유용하여 정치담론에 흔히 등장하며 국내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도 유럽공동체, 아세안경제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등 국제적 연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단위의 집합 혹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우리의식(we-feeling)'을 갖는 행위자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공동체, 협동체란 언어는 일본이 게마인샤프트의 번역어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가 혈연, 지연처럼 정서적 유대에 근거한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국제정치 개념으로서 회자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도 단순한 이익공유행위자의 집합으로 관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현실에서 따져보면 신화(myth)에 가까운, 수사의 차원에서 열망을 표현하는 언어라 볼 수 있다(하영선 편, 2009).

동아시아공동체의 기원인 1938년 '동아협동체' 역시 그러한 열망을 담는 개념이었다. 미키 키요시(三木清)와 쇼와켄큐카이(昭和研究會)가 고안한 이 개념은 아시아 사회에 공유된 게마인샤프트적 요소를 기초로 하여 지역을 하나로 엮으려는 시도로 창조되었다. 그 배경에는 중일관계, 즉 중국과의 갈등과 전쟁을 넘어서려는 정치적 목적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시아와 일본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위해서 중국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민족의 협력을 얻고자 하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핵심적으로 중국의 민족주의를 품어 안는 대단히 고난도의 과제이었다. 공동체 개념은 중국민족주의와 일본민족주의를 동시에 품는 일정한 보편성을 담지하려는 필요 속에서 동원되었고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글은 1930년대 동아시아 공간에서 공동체 혹은 협동체란 개념이 담지하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첫째, 1938년 일본에서 공식화된 동아협동체론의 등장 배경을 추적한다. 당시 일본정계와 지성계를 풍미한 쇼와연구회의 기록을 검토하여 동아협동체론 논의의 배경을 추적하고, 협동체 개념의 정치, 사회적 맥락을 분석한다. 둘째는 조선에서 동아협동체 유통을 담당한 이른바 전향자의 분석이다. 동아협동체는 1930년 전향자(미키)의 작품은 만큼 민족/민족주의를 넘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넘는 일정한 혁신성을 담고 있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조선에서의 수용자 역시 1938년을 기점으로 한 전향자 그룹이다. 이들의 개념 수용 배경과 논거를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II. 개념의 창조: 쇼와연구회와 동아협동체

쇼와연구회는 1930년대 중후반 활동한 고노에 후미마로의 사설자문기관이다. 당시 고노에는 차기 수상으로 손꼽히는 후보이었고 가까운 장래에 수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류 인사들이 자연스레 모여 최고의 엘리트 연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또한 정관계, 군의 최고엘리트들도 초청되어 함께 토론하는 장이어서 이들의 형세 판단과 진로의 모색이 당대 최첨단이었음은 물론이다.

1930년대는 5.15사건이나 2.26 사건과 같은 정권전복 쿠데타 시도와 암살의 반복에서 보듯이 기존 정치질서, 정당질서와 관료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과 강렬한 반감이 청년 장교와 우익 조직에 의해 표출되었다. 농본주의와 군국주의 파시즘이 횡행하는 속에서 고노에와 같은 정치엘리트들은 일본의 미래에 대한 혁신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노에는 “러일전쟁 직전 일본은 국내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적어도 영국과의 동맹과 러시아와의 대결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다. 반면 1936년 현재 국내 여론은 깊이 분열되어 있고 도시와 농촌, 육군과 해군, 군인과 외교관 간 심각한 불신과 대립이 존재하여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술회한다. (p. 323 crowley)

고노에를 돕는 쇼와연구회는 요시다 시게루(내각조사국장), 요시노 신지(상공차관), 아리타 하치로(외상) 등 유력관료 등이 참여하여 명성을 높이게 되고, 1936년 가을부터 거의 매주 미팅을 하여 국내외 형제 진단 및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특히 “현재 일본의 여러 불안 요인은 대외문제에 기인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쇼와연구회는 국제문제 토론과에 역점을 기울였다. 그 본격적 출발점은 1937년 3월 다카하시 카메키치(高橋龜吉)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책수립의 근본문제와 관점”과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두 발제문과 세계의 대세에 대한 토론이었다. 만주국 건설,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만주사변 이래 중국정부, 소련, 영미와 외교적 갈등관계 등은 기존 국제평화체제의 근본적인 약점의 결과이며, 일본은 세계의 안정된 질서를 만들어가는 고통스런 과정에 직면해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국내개혁과 “독자적 외교정책”을 통해 새롭게 활로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베르사이유 조약체제가 파탄의 길을 걷고 대공황 이후 과격한 경제적 민족주의가 횡행하는 세가지 시대의 조류를 강조하면서 현재 정치지도자들은 현상유지의 구습에 젖어 신세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판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계획경제와 정치체제 개혁, 대외적으로는 대중 온건정책의 추구를 제안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의 식민지질서를 벗어나서 동남아와 필리핀, 난징정부의 민족주의 운동을 지원하고 중국에서 군사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피해야 비로소 아시아에서 일본의 지도적 위치가 확보될 것이라 주장한다.

쇼와연구회의 대외정책의 중점은 1931년 만주사변 이래 일본외교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중국문제로 모아졌다. 7월 노구교 사건이 발발하고, 전국(戰局)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시나 문제연구회”가 적극적 활동을 벌이게 된다. 4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다나카 카나에(田中香苗)는 중국의 통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장제스 정부(남경정부)의 부상은 중국 민족주의의

결과이며, 만주사변 이래 유럽 열강들이 과거 중국의 분열정책을 버리고 난징(南京)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통일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난징정부의 군사적, 경제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국의 통일은 이상에 불과하지만 중국 민족주의는 일본을 겨냥하고 있고 특히 영국과 소련이 이런 방향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의 결론은,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이고, 남경정부는 열강의 후원하에 반일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통일을 추구할 것이며 그 사상적 기반은 중국 민족주의라는 것이다(189).

시나문제연구회는 중국문제를 푸는 근본대책을 세계질서의 구조로부터 찾고자 하였다. 4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호리에 무라이치(堀江一)는 현재 중국문제가 제국주의,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자본주의가 야기한 현상으로 보았다. 전후 세계자본주의의 여러 모순 즉, 발전의 불균형이 제국주의 식민지 요구를 강화시켜 열강의 중국 진출을 촉진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세력균형을 무너뜨렸으나 만주경영에 한계를 노정하고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열강의 반격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중국진출에 대한 내부 역량의 한계와 열강세력 간의 균형점 사이에서 중국의 민족주의 발흥과 근대국가화가 진전되었다는 시각이다(208-9). 여기서 중국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불가결한 요소는 열강의 중국개입과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쇼와연구회에서 중국문제의 대표전문가인 오자키 호츠미는 영국 요인에 주목한다. 그는 영국의 대목표는 중국의 통일과 안정된 시장에 있다면서 중국에서 공산주의의 위협보다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더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영국의 정책이 향후 일본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47-62) 따라서 아시아 질서를 변환하는 포괄적 개혁 프로그램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중국 문제 해결이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7월 들면서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래, 8월 중국공산당이 항일구국 10대강령을 발표하고, 중소 불가침조약이 성립, 9월에는 항일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고 일본군이 항주에 상륙하여 전선을 확대, 12월에는 남경을 점령하는 등 급박한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쇼와연구회는 장제스 정부를 굴복시키는데 군사적 수단에 의한 해결이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고노에 내각은 1938년 1월 16일 국민당정부와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사변의 조기해결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자 충격을 받게 된다. 이후 쇼와연구회는 정부방침 변경을 위해 중일전쟁과 중국문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와 이에 기반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로 시나문제연구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의 대륙정책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대처를 위한 정책개발에 나섰다. “현재 支那事變(즉, 중일전쟁)의 해결은 일본의 전 국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문제...우선적으로 급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백년의 후회를 남기는 위험한 지점”이며, 이는 모든 대륙정책의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해결을 위해 모든 국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452, 1938년 5월 “시나사변에 대처하는 근본방책에 대하여”). 시나사변의 장기화의 원인은 소련의 중국적화정책과 항일국민운동의 지원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대륙정책의 최종 목표는 소련과의 전쟁이다. (458) 역으로 일본의 중국정책의 성공은 소련과의 전쟁에 대한 선결조건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남경정부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중국에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정치전략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한다. 이에 따라 일본과 만주국, 북중국간 정치경제 블록을 구축하여 하나의 통일된 중국을 건설하여 소련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 영국정책은 중국의 화남과 화중에서 영국의 권익을 보장하는 대신 화북에서 손을 떼게 하고, 반 공산주의 연합을 획책하여 영국과 소련간 관계개선을 방지하는 외교책이었다.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중부와 남부를 장악하고 한코우 산업단지를 획득하면 열강이 중국지원을 포기하게 되고 따라서 국민당정부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나사변 수습의 일반적 방침 및 목표(1938년 6월)”는 일본외교의 당면 목표로 “시나사변이 세계전쟁으로 전화할 위험을 극력방지”하는 데 두고, 두가지 안을 제시한다. 제1안은 국민당 정부를 중국 유일의 중앙정권으로 인정하고, 북중국 임시정부와 중중국 유신정부를 설립, 국민당정부는 북중국의 완충지대화, 만주국 승인, 방공협정 참가, 배상금 제공 등을 제시, 제2안은 국민당정부를 상대로 사변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당정부 타도에 매진하며 일본군의 점령지역에 임시 유신정부 발전조성에 노력한다는 안이다(479-82). 요컨대 쇼와연구회는 1년만에 사실상 국민당정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문제는 중국에서 신질서 수립을 위한 믿을 만한 포괄적 정책을 짜는 일이다. 일본은 고통스런 현실과 직면하고 있었다. 국민당 정부와 우호관계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국 민족주의와 서구 제국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독점자본가와 시대착오적 군국주의자들이 장악한 질서 속에서 확대일로의 전쟁에 필요한 군사력을 지탱할 경제계획 프로그램이 부재한 현실에서 오는 불안을 불식하고 초기에 품었던 희망을 되살리고자 연구회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신사상”의 필요성이 그것이었다. “중화민족 개개의 문화, 특히 중국과 일본에 공통된 문화를 존중하고 동양문명 및 동양정신을 부흥시켜 일중 협조를 촉진”하고 “신정권의 정책을 추진할 일중협조 실현의 기초가 되는 사상을 확립”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이가 미키 기요시(三木清)이다. 미키는 제1고보 시절부터 “空前의 秀才”로서 이름을 떨쳤고 당시 지성계를 풍미한 니시다 기타로를 흠모하여 도쿄대학이 아닌 교토대학 문학부에 진학하여 철학공부에 매진하였다. 독지가의 도움으로 하이델베르그, 마부르크대학에서 수학하여 하이데거를 만났고 이후 法政대학교수가 되었다. 신칸트주의로 시작하였으나 맑스주의에 심취하여 문필활동을 진행하다 1930년 투옥, 이후 전향(轉向)하여 요미우리신문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며 필명을 떨치다 1938년 쇼와연구회에 초청을 받게 된다. 쇼와연구회는 미키를 좌장으로 하는 문화연구회를 설립하였고, 미키는 문화 차원에서 중국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쇼와연구회에 바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그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행동은 동양의 화평과 양국의 우호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란 정부의 공식견해에 동조하면서 “일본이 중국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사상이란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며...정신은 양국관계의 사상의 기초가 된다..영향권을 아시아대륙에 확대하는 이 시점에서 일본문화가 응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이다”라고 하여 문화적 공동체의 모색을 주문하고 있다.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찾아 고뇌하고 있다...일본은 신질서의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재 일본의 군사행동은 단순히 대규모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대 사상이 필요하다.”

“동양의 20세기는 중일전쟁으로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는 세계전쟁이기 때문이다. 중일전쟁은 인류의 비극이 아니라 일본에게 호기 즉, 공간적으로는 동양의 통일, 보편적으로는 자본주의사회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는 일본의 세계사적 사명을 실현하는 기회이다.”

“세계사의 새로운 이념으로서 등장한 공산주의는 독일의 실패를 계기로 지배적인 사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만일 당시 공산당이 성공하였다면 공산주의는 세계의 통일적 이념이 되었을 것이나 자유주의 및 파시즘과 대립 투쟁하는 상태이다. 이 세 이념을 넘어 세계를 적극적으로 통일하는 사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은 고려해 볼 수 있는 한가지 길이다. 세계전쟁을 치르면 세가지 이념은 변질되어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

“동양이라는 세계는 서양과 달리 종교, 정치, 문화측면에서 공통의 요소가 없이 내면적 통일이 없는 곳이다. 여기서 동양의 통일을 일본이 수행할 것인가, 중국이 수행할 것인가 알 수 없지만 동양의 통일은 이제 세계사적 단계에 왔다.”

“중국과 관계없이 향후 일본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일본 고유의 것을 중국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하며 불가능하다. 중국과 일본의 진정한 결합 없이는 동양이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사적 의미에서 중일제휴 혹은 일만지(일본-만주-중국) 일체라는 것은 이제까지 실현되지 못했던 동양의 통일을 시나사변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된다.”

“이는 서양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동양이 형성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가 형성되는 날이다.”

“중국이 진전해 온 근대화의 방향은 방해되어서는 안된다. 중국 건설의 원리는 동시에 (일본)국내 개혁의 원리이며, 국내개혁의 원리는 동시에 세계형성의 원리이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형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대사업을 달성하는 것이 일본의 세계사적 사명이다.”

“동양의 통일은 일본민족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과제이다.. 그 중요한 과제는 자본주의 문제의 해결이란 근본적 문제를 포함한다. 동양의 통일은 단지 자본주의적 통일이어서는 세계사적 의미가 없다. 일본의 세계사적 사명은 공간적으로는 동양의 통일이고 시간적으로는 자본주의사회의 해결이다.”

“동양의 건설은 열강에 대한 배제적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질서의 건설에 협력을 요망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양의 통일이란 일본의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문화적 통일을 의미한다.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간 (사실상 일본과 중국)의 연대라 할 수 있다. 미키는 이 신문화의 주도권을 일본이 장악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개혁과 일본문화의 성격이 “질적인 발전”을 성취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미키 담론의 진보적 성향을 읽을 수 있다. 1930년대 일본의 지성계에는 문화주의가 강하게 부상하고 있었다. 문명개화를 충실히 추구하는 속에서, 상실의 위기에 있는 일본의 문화에 주목하여 일본적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지적 노력이 그것이다. 곤도 세이키, 다치바나 코사부로 등은 문명이란 개념을 단지 구미의 물질적 진보와 인간적 저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반면, 문화는 창조적 자기실현의 의미로 받아들인다(Najita and Harootunian 1988). 이 변화는 일본이 서양제국주의로부터 간섭의 제거와 역내 패권적 지위의 확보란 정치적 과제를 추구해야 하는 정치경제적 조건과 함께, 급속한 문명화, 산업화 과정에서 이른바 “일본적 정신”의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란 문화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농본주의는 오래전 과거의 공동체적 기원으로 전회하여 연대와 협동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를 이상향을 꿈꾸는 담론체계를 만들어 내었다. 나아가 야나기타 쿠니오는 문화적 특수주의 즉, 일본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공동체론을 전개하였다.

미키의 공헌은 이러한 문화주의의 추세를 이어가되, 두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꾀한다. 첫째는 일본의 공동체를 동아시아 공동체로 확장한 것이다. 즉, 공동체적 특질을 지역의 공유 가치로 정의한 것이고 따라서 둘째는 그 특질은 일정한 보편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공동체적 가치는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는 일본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종래의 일본정신론에 중대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정신과 결합하여 양자를 초월하는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어야 하며 일본문화에는 이를 성취할 만한 요소가 담겨져 있음에 주목한다. 일본문화의 우수성은 외국문화의 영향을 흡수, 결합하는 능력, 즉, “形이 없는 주체적 문화”로서 구미의 기술을 흡수하고 고도화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군사력을 갖추게 된 데서 증명된다. “일본문화가 외부에 진출하려면 여타 민족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문화가 形이 없는 것을 넘어서 形이 있는 객관적이고 새로운 문화로 발전해야 한다.” 여기서 일본이 추구해야 할 문화적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협동체이다. 미키는 동아시아를 게마인샤프트적 속성을 지닌 장소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게셀샤프트와 대조되는 게마인샤프트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서 이는 민족적 전체가 아니라 민족을 초월한 전체이다. 따라서 동아시아협동체의 결합의 원리는 민족주의적 전체주의자가 말하는 단순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단순한 게셀샤프트적 합리성에 의해 고려되는 것도 아니다. 동아시아협동체는 민족을 초월한 전체로서 그 결합의 기초는 피와 같은 비합리적 요소가 아니라 동양문화의 전통과 같은 것이다...민족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역사적 개념이다. 민족은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역사적으로 발전한다. 전체주의가 민족적 전체로부터 동아시아협동체라는 민족을 초월한 전체로 발전하는 경우, 합리성의 요구는 점차 확대되고 따라서 전체가 단순히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으로 변해가게 된다. 동아시아협동체란 전체는 개방적으로 여러 민족들을 포함해야 하며 여러 민족이 각각의 개성과 독자성을 잃지 않고 자기의 발달을 성취해야 한다. 요컨대 협

동체란 게셀샤프트보다는 게마인샤프트이고 따라서 근대적 자유주의의 원리가 아닌 전체주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119-120).”

그러나 미키는 한걸음 나아가 동양의 게마인샤프트가 서양의 게셀샤프트가 가진 과학적 정신을 학습하여 자본주의와 봉건제를 초월하는 새로운 게마인샤프트 창조를 주장한다. 이는 구미의 기술과 동양적 휴머니즘을 융합한, 개인은 자기의 이익보다 전체의 복지를 우선하는 아시아적 사회편성으로서 협동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협동체는 국내 개혁의 지도개념이기도 하다. 그는 “일본의 지도하에 성립되는 동아협동체 속에 일본자신도 포함되므로 일본도 협동체의 원리에 따라야 하며 그 민족주의적 제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동아협동체를 통해 일본의 국내개혁을 정조준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대체하는 즉, 자본주의의 폐해와 계급투쟁을 넘어 일본인의 생활에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는 관료주의에 저항하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자발성과 창조력은 인정하되 전체의 입장에서의 계획성을 강조한다. 유럽 파시즘국가에서 보이는 협동체국가를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아협동체는 당시 국제관계의 대세인 지역경제블록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소련 등이 자급자족적 지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속에서 열강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어 동양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역공간을 건설하려는 시도이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중국문제 즉, 단기간에 중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전망이 희박한 상황을 탈피하여 중국을 일본중심의 공간에 편입시키려는 즉, 중국의 민족적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일본중심의 신체제에 편입하도록 일본민족주의와 중국민족주의를 융화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는 중일전쟁의 세계사적 의미를 구미 자본주의(영리주의)와 근대주의(자유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로부터 일본과 아시아를 구출하는 것으로서 전쟁을 통해 아시아의 단합과 통일을 기하며 일본은 중국의 근대화를 돕는 동시에 근대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새로운 문화로 나아가도록 공진하자고 제안한다.

쇼와연구회는 미키의 협동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동양의 부흥”을 향한 일종의 협동, 신질서 건설에 대한 열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대중정책의 쇄신을 요구하였다. 이런 연구회의 입장은 1938년 11월 3일 유명한 고노에 수상 연설(제2차 고노에 성명)로 이어진다. 전쟁에 보편성을 가진 도의적 목적이 필요하다며 중일전쟁의 목적을 “동아의 영원한 안정을 확보할 신질서의 건설에 있다”고 정의하고 신질서를 통해 세계사의 신단계를 창조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성명은 중국측에 대해 “동아신질서 건설의 임무를 분담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국민당정부가 근본적 개혁을 실현한다면 일본은 중국재건에 국민당정부가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고노에 내각이 1938년 1월 16일 발표한 “국민당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고노에는 중일전쟁의 의미와 해결책에 대해 미키와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동아협동체론은 중일전쟁기 일본이 시도한 유일한 사상적 창조노력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미키를 비롯한 일본의 최고 지식인과 관료

가 모여 내어놓은 성과이자,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를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호소하는 보편적 메시지이었다. 결국 그 성패는 일본이 발신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메시지의 호소력에 달려있었다. 쇼와연구회의 핵심멤버 오자키 호츠미는 “동아협동체론을 발생시킨 가장 깊은 원인은 중국문제를 재인식하게 된 점”이며 동아협동체의 성패는 중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는 것이라 보았다. 중국이 끈질기게 저항하는 근저에는 항일통일전선에서 보듯이 강렬한 민족주의가 자리하고 있는데 동아협동체가 이를 정면에서 풀어가지 못하면 결국 신비주의적 결정론으로 끝날 것이라 단언하였다. (동아협동체의 이념과 그 성립의 객관적 기초, 1939)

III. 개념의 전파: 조선에서 동아협동체의 수용

1938년 11월 동아협동체가 일본정부의 공식 담론으로 등장하자마자 식민지조선에서는 불과 한달 남짓해서 동아협동체를 수용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삼천리 1939.1월호). 아이러니한 점은 1930년 전향한 미키의 동아협동체론을 주도적으로 수용한 이들도 전향자들이란 사실이다. 홍종욱(“중일전쟁기 조선 사회주의자들의 전향과 논리” 2000)에 따르면 조선의 전향은 단순히 일제 공권력의 탄압과 사회주의자의 굴복으로 보기보다는 중일전쟁을 전후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란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본의 국제적 지위 상승,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1930년대 초 만주사변을 겪으면서 일본에서 대량 전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민족’이란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일본 사회주의자들이 계급에서 (일본)민족으로 전향하였다면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때문에 -- 즉, 민족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 전향하지 못하였다(ibid).

반면 중일전쟁은 사회주의자의 전향을 크게 증가시켰다. 사회주의자들은 1930년대 식민지조선을 둘러싼 기본적 대립을 국제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파시즘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의 대결로 보고, 조선민중의 장래는 일본과 소련간의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라 기회의 계기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일전쟁 발발 초기에 사회주의자들은 일본의 도발이 가져올 국제적 반파시스트 전쟁을 예상하고 일본이 전시경제로 이행하면서 파멸의 위기를 맞이하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또한 일·소개전을 기대하고 소련의 지원 하에 조선혁명을 일으켜 일본을 몰아내는 희망을 품었지만, 막상 개전이래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대부분의 해안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소련이 일본에 대해 평화외교를 전개하자 절망하게 된다.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은 그나마 남아 있던 반파시스트 인민전선전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 사건이 되었다. 카프 즉,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가동맹(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KAPF) 출신 백철은 “時代的 偶然的 受理”라는 표현을 쓰며 “지금 동양의 현실은 우연[중일전쟁]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사실”이므로 선악을 떠나 이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事實의 受理”를 피력한 바 있다(洪宗郁 2011, 64). 중일전쟁이란 세계사적 사실을 받아 들여 이제 일본의 성장을 막을 세력이 없으며 결국 일제가 제시하는 정책과 구상 속에서 최소한의

희망과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1938년 10월 일본군이 武漢과 廣東을 점령하여 중국의 국민당정부가 대륙의 주요부를 잃고 서남부, 서북부 내륙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자 전향자들은 사실의 수리 속에서 동아협동체를 일제히 내걸게 된다. 대표적으로 1939년 1월 신동아는 "동아협동체와 조선"이란 특집호에서 3인의 전향자 지식인의 글을 게재한다. 이들은 중일전쟁의 정세가 결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았다.

“무한의 함락은 항일운동에 대한 최후의 결정적 타격이었다. 따라서 전쟁은 중국측에서 보아도 제국(일본)측에서 보아도 확실히 새로운 단계에 전입하고 있다”(인정식 1939, 54), “장개석정권은 항전의 최대근거를 상실하고 그 정치적 경제적 국제외교적 근간을 빼앗기어 발서 일본의 사변상대자로서는 지극히 무력한 것이 되고야 말았다”(차재정 1939, 64), “이미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또 정치적으로 지나의 면목을 일변케해야 경제적 기초공작이 전개됨과 함께 문화적으로 신생활의 협동이 실현되고 있으니 이것은 어느 상대방에서 질겨하지 아니하여도 또는 어느 제3국에서 음으로 양으로 저지하여도 제국의 기정방침과 같이 실현될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김명식 1939, 48).

이런 시국 인식하에서 이들은 조선의 활로로 동아협동체를 적극 수용하게 된다. 세상은 “장기전쟁에서 장기건설로 이행(인정식 54)“하고 있으므로 조선은 ”건설의식“(김명식)을 갖추자는 것이다. 동아협동체의 건설문제를 설파한 김명식은 식민지 초기 조선 사회주의운동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자 좌파지식인으로서 1938년 전향하여 사상의 단절로 역사속에 잊혀진 인물이다. 1892생으로 한성고보와 와세다 정경학부(1915) 수학중 신아동맹단의 핵심단원으로 활동하고 귀국 후, 동아일보 논설반원으로 新生活 발간, 사회혁명당 창립멤버 등으로 활동하다 1922년 필화사건으로 조선 최초 사회주의재판을 받고 복역 중 고문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출옥하였다. 이후 도일하여 오사카에서 병치료 및 노동운동 지도 활동 중 검거된 후, 잔여형기 복역하고 석방되었다.

김명식은 1920년대 레닌 등 사회주의이론을 소개하면서 식민지 사회경제적 성격 논쟁을 주도하였고, 투옥과 석방 이후 오사카로 넘어가 병치료와 노동운동 지도 활동 등으로 검거된 후 잔여형기를 복역하고 석방되었다. 1930년대 초반에는 민족의 전통에 대한 관심으로 단군연구를 통해 조선연구의 국수주의적 성격을 비판한 바 있다. 1934년이후에는 좌파 지식인으로서 비교적 단순한 국제정세 해설 -- 예컨대 “일중신관계와 열강의 태도(신동아 1934.6),” “북중정권의 신행태(삼천리 1935.10) -- 에 머무르다가 1936년말 오사카에서 귀국하여 1년여의 잠적과 모색기를 거친 뒤 1938년 전향하여 동아협동체와 함께 재등장하게 된다.

“건설의식과 대륙진출”(삼천리 1939.1)에서 그는 동아협동체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안을 제국주의논리와 차별적인,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조선은 “특별한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신운명의 제1조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중일 사이에 끼어 고통받아온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조선의 활로는 신질서 건설에 앞장서면서 “일지 양

민족간에서 조화역”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키의 보편주의적 동아협동체 개념을 받아 조선이 제시할 구체적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데모구라시, 경제적으로 고렉피브, 사회적으로 휴머니즘”으로 구성되는 “이상주의”를 제안하고, 세계성을 갖는 신건설을 내걸면서 동서양 구분보다는 초지역적 시대의식의 수립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공히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서 통제경제 확립을 지지하면서, 이를 통해 ‘공정가격’을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실시하고, 토지의 국가관리 등 주장, 이를 “日滿支 불록” 전체의 통제경제 강화 틀 속에서 경제이득을 기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족문제에 대해서 김명식은 미키의 동아협동체론으로부터 희망의 빛을 찾고자 했다. 미키는 민족이란 혈연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교토학파)인 만큼 동아시아도 구성주의적으로 단일공동체(연방)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서양자본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동아시아의 협동체는 전통(유교적 전통)에 의존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봉건의 부활이 아닌 신문화의 창조. 동양적 휴머니즘에 기반한 협동주의(cooperativism)와 전문지식(expert knowledge)에 의한 통합, 반자본주의적이고 반근대주의적 인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은 사회주의자 전력의 김명식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대목이었다. 특히 협동체 내부에서 각 민족의 독자성 인정하되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민족과 민족을 결합하는 공공성/세계성을 띤 지역적 정체성 창조, 따라서 합리적 협동체이어야한다는 미키의 주장은 매력적이었다.

미키의 이론을 원용한 김명식의 조선의 민족문제해법은 연방론을 통한 내선일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일본이 중국을 식민지화하는 것이 아닌 만큼 대안은 연방일 것이라 추측했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 도입한 협동체 개념을 내선(일본-조선)간에도 적용한다는 주장이다. 타자성을 존중하는 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조선의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논리이고, 역으로 이러한 제국은 조선인의 적극적 참여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독부가 총력전체제를 위한 동원의 기제로 강력히 추진하는 내선일체론이 강한 동화정책이라면 김명식의 내선일체론은 동아협동체의 조선적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 점은 다른 기고자인 인명식도 동의하고 있다. 그 역시 사회주의자로서 검거와 투옥을 반복하다 1938년 10월 우한, 광둥의 함락 시점에서 전향을 선언하며 출옥한 직후, 일본의 혁신세력 즉, 쇼와연구회의 작업을 높이 평가하며, “동아협동체의 원리가 민족문제-식민지 문제 해결에 대해 새로운 광명을 던지고 있다”고 술회한다. 중국 민족주의의 저항에 직면하여 그 타자성/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 동아협동체 원리를 조선과의 관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독립 조선이 아닌 제국의 일부로서 조선을 인정하는 한에서의 내선일체론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 동아협동체의 이상은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충실한 임무를 다할 때만 조선민중에게 생존과 번영과 행복을 약속하려한다. 여기에 조선인의 운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56)이라고 그 한계를 시인하고 있다.

요컨대, 조선에서 동아협동체론의 수용은 전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동아협동체 구상에 담긴 혁신의 의미는 구미 자본주의를 초극하려는 시도인 점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의해 자본주의를 대체하려는 전향이전 사회주의자들은 용이하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전향

의 경우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친일에 대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경제적 차원에서는 별개의 논리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혁신적 경제체제를 통해 조선경제를 자립, 발전시키려는 열망과 연결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역시 민족간 협동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협동체 논리를 조선 민족에게 적용하여 민족적 협동의 단위가 됨으로써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것이다. 전향자들이 내선일체론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맥락이었다.

동아협동체는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며 자주적 이익과 문화를 갖는 동아 여러 민족간의 공존공영을 주창하나 문제는 과연 조선을 단위/주체로 인정해줄 것인가이다. 미키는 조선을 협동체 내부의 주체로 상정하지는 않았다. 이 점은 쇼와연구회 내에서 동아협동체 개념이 중국민족주의의 거센 저항과 마주한 과정에서 탄생한 것임을 상기하면 명확해진다. 일본과 싸우지 않는 조선에 대한 동아협동체론이 갖는 한계가 명백할 수 밖에 없다.

VI. 결론에 대신하여

협동체 개념 혹은 공동체 개념을 동아란 지역의 차원에서 도입한 동아협동체론은 분명 쇼와연구회의 최대 지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미키를 위시한 쇼와연구회는 게마인샤프트의 번역어로 협동체를 사용, 새로운 지역질서를 구상하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이 일방적 방식으로 지역을 조직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 진 시점에서 나온 작품이다. 중국민족주의의 강렬한 저항 속에서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어 장차 소련과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일본의 국익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성패는 중국의 수용에 달려있었다. 과연 동아협동체론은 중국민족주의와 화해할 수 있었을까.

관건은 일본의 국내체제개혁이었다. 중일전쟁의 근본적 해결의 기초는 일본의 혁신적, 동아협동체를 주도하는 일본의 협동체국가 건설에 있다는 것이 쇼와연구회의 결론이었다. 오자키 호츠미는 중국내에서 동아협동체를 진정으로 고려하는 이들은 일본의 '국민재편성' 문제의 진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일본국내의 개혁이 실행되어 협동체론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중국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 "이번 대중국 작전의 목적은 중일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의 합작을 기초로 하여 동아시아의 신질서를 창조하는 데 있다고 일본은 말하지만 이것은 한갓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평등한 조건에 기초하여 일본과 합작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본정부에 의해 제기된 정치합작은 전적으로 중국의 자유독립국가로서의 신성한 권리를 희생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국민은 끝까지 반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입장은 차후에도 변경되지 않았고 전쟁은 지속되었다.

일본정부는 동아협동체론을 띄우며 외교적 노력을 함께 경주하였다. 국민당정부를 지원하는 영국과 외교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국과도 관계개선 시도를 펼쳤다. 1937년 10월 5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시카고에서 이른바 "격리"연설 즉, "인간사회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는 경우 그 만연을 막기 위해 병자를 격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무법국가(일본)은 타국과 일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고립주의적 외교노선의 변화를 시사한 데 대해, 고노에 내각 뒤를 이어 등장한 히라누마 내각은 미국과 관계개선으로 전쟁을 수습하고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명식 등 당시 전향파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의 국제정세판단은 여러 오류가 있었다. 이들은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패권 확대에 따라 독립의 희망을 잃어가는 속에서 중일전쟁 초기 전세를 일본의 압도적 우세로 판단함 점, 그리고 이후 1년여 전선교착과 총력전 지속에 따른 일본의 내부적 부담을 거의 읽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1938년 10월 무한, 광동의 합락 이후 악화일로의 중일관계에 대한 쇼와연구회의 깊은 우려와 달리 전향파는 이를 일본의 결정적 승세로 오판하고 동아협동체를 바로 수용하였다. 더욱이, 1939년 1월 신동아 특집호와 협동체 수용론이 이어지는 바로 그 순간, 정작 일본에서는 고노에 내각이 총사퇴하고 동아협동체가 쇠퇴하는 사태가 진전되고 있었다. 이들은 동아협동체 구상 이면에 깔려있는 일본의 깊은 고민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본의 국내정치가 변화하여 동아협동체 전파의 관건인 국내혁신을 추진한 주역이 퇴장하는 사태의 의미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조선에 가져다 줄 이득실을 좁게 판단하고 있었다.

요컨대,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이 끈질기게 버티고 영국이 지원하는 상황, 소련이 동진하면서 구조적 압력을 점증해가는 상황, 더 나아가 미국과의 최종전 가능성이 부상하는 상황 속에서 전향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동아협동체는 이들에게 전향의 명분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1938년은 김명식과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버티어나갈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김명식은 “일미국교의 타진”(비판, 1938.4)에서 보듯이 소련의 불개입, 영불미 공조의 불발에 비추어 영미 협조의 가능성과 미일간 충돌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등, 국제정치적 상황을 오판하여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말았다.